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노동자계급 정치세력화는 시대적 책무다

21 세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한국 노동운동은 중대 도전을 맞고 있다. IMF 관리체제 하의 세계화 급진전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병행 발전'을 내세운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 그리고 감도 높은 자본의 경영 합리화 공세 등이 그것이다. 이런 도전은 국가권력과 자본의 새로운 지배양식과 통제방식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중대 도전과 지배·통제방식의 변화에 대한 노동세력의 대응을 위해서는 전략 목표의 확고한 설정과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투쟁의 전개 그리고 주체역량의 강화가 요구된다. 이런 계급적 대응은 어차피 정치투쟁의 성격을 띠게 되고, 노동자계급(노조운동)의 정치세력화가 전면에 대두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들은 어떤 것인가. 먼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의의는 무엇이고 정치세력화가 왜 필요한가. 한국에 있어서 진보정당운동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주요 각국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과정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전략 목표는 어떠한가. 정치환경의 변화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과정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며, 실천 과정을 통해 더욱 구체적이고 풍부한 정치세력화 기초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자(노동조합) 정치세력화가 담은 의미

노동조합은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통일적 전개를 기본 임무로 한다. 이런 기본임무를 수행하는 데서 노조는 다양

한 형태의 정치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노조의 정치활동은 정당 건설과 선거정치를 통한 정권에 대한 접근과 정권 장악,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각종 투쟁과 활동, 정치적 연합전술 또는 통일전선 전술, 총파업 투쟁을 비롯한 대규모 대중투쟁, 무정부주의적 생디칼리즘(anarcho-syndicalism)을 채택한 노조들이 정치적 총파업 등에 의한 직접행동(direct action)을 통해 정당이 아니라 노조가 직접 국가권력 해체를 추구한 방식(syndicalist politics)등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는 노동자 정치활동과 어떻게 다른가.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노동자계급이 정치영역에서 역량을 형성하여 영향력 있는 세력 차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노조가 추진하는 정치활동의 일환으로서 독자적인 정당을 건설하고 각급 선거에 참여하여 국가정책 결정기구로 진출하거나 국가권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형태와 추진방식은 그 사회가 놓인 정치적 또는 시대적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당면 과제는 정당 조직화와 이를 뒷받침할 노동자의 사회세력화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 정당은 노동자계급 조직의 최고 형태이다. 정당은 편협한 직업적 사고를 뛰어넘어 계급적 토대 위에서 건설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자 정당은 총자본과 부르주아 정당 그리고 국가권력을 상대로 투쟁 목표를 설정하게 마련이다. 또한 노동자 정당은 자본주의 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게 된다. 이런 정당 조직화는 노동자계급의 사회세력화 뒷받침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세력화는 노동운동의 발전을 비롯하여 계급으로서의 정체성과 사회적 장악력 확보 그리고 다른 민중운동 및 사회세력과의

정치적 연대와 동맹 강화 등을 의미한다.

##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시대적 요구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노동운동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요구이자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계급적 관계나 정치체제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주체적 역할 등에 의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진전이 단절되거나 지연되어 왔을 뿐이다. 이제 노동자계급의 성장과 상황 변화는 정치세력화의 새로운 진전을 다급하게 재촉하고 있다. 새삼스런 얘기가 필요는 몰라도,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왜 필요한지를 따져보자.

첫째, 노동운동의 자기발전을 위해서이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 있거니와, 노동조합운동은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통일을 기본임무로 한다. 그런 점에서 정치세력화를 위한 노력은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치와 경제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면서도 제도적으로 분리되어 서로 다른 규칙과 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각 영역의 논리와 규칙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치세력화를 필수적 요건인 정당 건설과 정당조직을 통한 정치활동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당은 주로 정치영역에서 국가권력의 획득을 종국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선거정치의 논리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노동자정당 건설과 선거참여를 통한 정치세력화 추진이 때로는 노동자와 노조의 이해관계와 마찰을 빚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때 노조와 정당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각각의 역할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문제 제기의 내용과 양상이 다를 수 있으나, 노조가

노동정치는 노동자와  
다수 민중의 의한 참여 정치이고  
모든 형태의 착취와 억압의 청산을  
목표로 하는 진보 정치이다.  
또한 사회제도의 낡은 틀을 지양하려는  
개혁 정치이며, 사회정의와 도덕성을  
확립하고 권위를 옹호하는  
미래 지향 정치이다.

주도하여 정당을 건설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경우는 노동자와 노조의 이해관계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노동운동에 대한 도전과 공세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마당에, 노동운동의 전진을 위해서도 정치세력화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자유주의 진행을 효과적으로 저지하며, 자본의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를 작업장 민주주의를 통해 규제하기에는 노조의 기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추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둘째, 정치체제의 개혁을 위해서이다. 보수정당이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부르주아 정치는 소수 집단에 의한 정치이고 자본편향의 정치이다. 또 지배관계의 유지를 지향하는 보수정치이며 노동배제의 억압정치이다. 이런 부르주아 정치의 극복이야말로 노동 정치의 전략적 목표이다. 노동정치는 노동자와 다수 민중에 의한 참여 정치이고 모든 형태의 착취와 억압의 청산을 목표로 하는 진보 정치이다. 또한 사회체제의 낡은 틀을 지양하려는 개혁 정치이며, 사회정의와 도덕성을 확립하고 평화를 옹호하는 미래 지향 정치이다.

현재 한국의 정치상황은 어떤가. 김대중 정부가 50년만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역설하면서 '국민의 정부'로 자처하고 정치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정당 중심의 정치구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개혁의 주체와 목표 그리고 개혁의 방향조차 불분명한 채 신자유주의 정책만이 위세를 떨치고 있다. 또한 지역주의적 대립구도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으며, 부패와 탈법구조는 청산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수 정치세력 사이의 갈등과 이해대립은 갈수록 첨예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노동자의 정치적 시민권은 확대·강화됨으로써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여건은 더한층 진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한국 사회 발전에서 노동자계급이 걸머진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이다. 한국 사회는 외세의 막강한 영향력에 의한 민족분단 상황이고 독점자본의 경제력 장악에 의한 민중 수탈적 상황이며, 권위주의적 권력에 의한 국민 억압적 상황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 말하자면 민족문제와 계급문제가 맞물려 있는 조건에서, 이런 모순 구조의

극복은 노동자계급에 맡겨진 역사적 책무이다.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추진되지 않고서는 이 같은 책무는 결코 이행될 수 없다.

노동자계급은 생산의 직접적 담당자이고 전체 국민 가운데 수적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집단일 뿐만 아니라 노동과정에서 단련되고 훈련된 계급이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나 국

노동자계급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대중조직인 노조와는 별도로 정당조직을 통한 정치세력화를 추구하는 것은 자기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당연한 방도이다.

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대중조직인 노조와는 별도로 정당조직을 통한 정치세력화를 추구하는 것은 자기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당연한 방도이다.

넷째, 21세기에 다가올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새로운 세기를 맞아 전개될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의 정치적 역할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래에 대한 올바른 전망에서부터 시기에 따라 진행되는 정세의 정확한 판단, 과학적인 전략과 전술의 수립 운용, 능동적인 정책적 정치적 대응을 위해서는 정치적 교두보의 구축이 필연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기본 전략

일제하에서부터 이어져 온 한국에 있어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전개는 비록 단절과 실패를 거듭해 오긴 했으나 몇 가지 점에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의 정치세력화 추진에 대해서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노동자 정치세력화 추진이 노동자 또는 노조가 주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식인 중심의 소시민 계층이 주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또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일기기는 하나 정치세력화의 전계가 대중조직과 대중세력에 굳건한 토대를 두고 행해지지 못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정치 조직으로서 형식과 내용이 확고히 정립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

활동도 폭넓게 추진되지 못했다. 미군정 시기와 50년대 후반 그리고 60년 4월혁명 이후 1년과 87년 민주항쟁 뒤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면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비공개 형태로 전개되기도 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위정당의 성격을 추구하기도 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과정에서 설정된 이념은 대체로 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였다. 정치조직이 추진한 정치활동과 정치운동도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처럼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다. 그 길이 참으로 어렵고 험난할 것이라는 사실은 노동자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을 터이다. 그러나 이 중대한 과업은 노동자계급이 걸머진 시대적 책무라는 점에서는 결코 피해갈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이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함에 있어 전략적 목표 설정을 비롯한 기본구도를 바로 짜는 일이야말로 주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 ① 추진 주체

먼저 정치세력화의 추진 주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주체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노동자계급과 노조 그리고 노동운동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노동자계급의 배타적 방식으로 추진될 수는 없다. 노동자계급을 주축으로 하고 민중세력과 민족민주운동 진영을 주도세력으로 하여 각계 각층의 광범위한 참여와 지지를 바탕으로 주체역량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노조가 정당 건설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은 결정적이라고 할 정도로 막중하기 때문에, 노조운동은 정치세력화에 대한 전략과 방침을 조직적으로 확고히 결정하여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정당과 노조의 관계는 상호 자율적이고도 독립적이면서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② 전략적 목표와 이념

다음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에서 추구할 전략적 목표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 것인가. 전략적 목표는 한국 사회의 모순구조와 노동운동

이 추구하는 노선 등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아마도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서 추구될 전략적 목표는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현재의 한국 사회 상황과 관련해서는 개혁의 목표까지를 포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세력화의 전략적 목표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통한 실질적 민주화 또는 민주변혁

노동운동이 일반 민중들의  
생존권 확보를 비롯한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며,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폭넓은 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본주의 제도의 온전한 유지는 아닐 터이다.

그렇다면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지향할 이념은 민주사회주의일 것인가. 그런 것 같지는 않다. 현재의 정치체제나 구조에 비추어 의회를 통한 노동 세력의 권력 획득 구상은 현실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노동운동 또는 사회운동과 정치운동의 통일성을 통한 권력 접근 또는 권력 획득을 추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말하자면 노동운동의 고안·발전이 정치운동을 촉진하게 하고 정치운동의 성장·발전이 노동운동을 새로운 차원으로 올려 세움으로써 권력 쪽으로 다가서는 그런 과정을 말한다. 그런 점에서 노동조직과 정치조직의 자율적 대응과 협력 그리고 동맹의 강화가 중요할 것이다.

### ③ 노동자 정당의 성격과 형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토대인 정당의 성격은 노동자 주축의 정당, 사회개혁적 진보정당, 대중투쟁을 지원하는 정당이 될 것이다. 또 노동자 정당은 합법적 정당이고 선거에 적극 참여하는 정당이며,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벌이는 정당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 정당은 다른 민중운동과 사회운동, 민족민주운동, 시민운동, 여타 동조세력과의 정치연대를 꾀고 경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노동자 정당은 노동자의 사회적 역량 강화를 통해 그 성장이 담보될 수 있기 때문에 대중노선을 철저히 추구하는 정당으로서

자기위상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 정치세력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한국 노동자계급이 정치세력화를 추진해 나가면서 부다치게 될 어려움은 대단히 클 것이고, 깨뜨려야 할 벽은 도처에 널려 있을 것임에 분명하다. 이렇게 본다면, 현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첫째, 노조운동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장기적 목표와 정치운동 방침 그리고 단계적 실천계획을 확립해야 한다. 조직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입장 차이를 조절하고 통일적인 정치방침을 집약하기 위해서는 현장토의를 비롯한 각급 단위의 조직에서 토론회를 조직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둘째, 노동자들이 벌이는 대중투쟁과 사회운동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바로 정치세력화의 기본 요건을 채우는 일이다. 노동운동이 전개하는 모든 종류의 투쟁과 활동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자주적 의식과 정치적 자각을 높이고, 노조 간부들의 사상 이론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정치 일꾼'을 양성하고 배출하는 일에 집중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자의 정치투쟁 또는 정치운동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일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일 것으로 보인다.

셋째, 다른 민중운동과 진보적 정치세력 그리고 다양한 시민운동과의 정치적 동맹이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주체 역량 형성과 강화를 위해 중요하다. 노조운동이나 노동자들의 권익이나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이 계급 이기주의로 치달아서는 안 될 것이다. 노동운동이 일반 민중들의 생존권 확보를 비롯한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폭넓은 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배세력과 보수 정치세력 그리고 자본진영의 공세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요구된다. 대중조직과 정치조직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공세를 막기 위한 기본 방편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 넓은 지지와 전술의 올바른 운용이 또한 관건이 될 것이다.

다섯째, 노조간부들의 경우는 물론이고 일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교육과 선전활동 등을 통해 정치세력화에 대한 통일적 의식을 확산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최근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합원들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간부와 일반 조합원 사이, 산업간 또는 직종 사이, 출신 지역 사이에서 심한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그 동안 행해진 정치 관련 교육이나 선전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간부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여섯째, 지역조직의 기능 강화와 지역 차원의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정당활동이나 선거정치는 지역적 토대 구축을 중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노조운동의 지역조직 강화가 요구되고, 지역 차원에서의 연대와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런 당면 과제의 해결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치르질 총선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노조운동이 정치세력화에 대한 조직적 결정을 행한 것을 비롯하여 정치 사업을 목적의식적으로 벌이고 선거정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치세력화의 기본 전략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회의원 총선을 치르면서 지역적으로나 부문별로 정치 조직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야말로 정당 조직화의 기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한국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는 모색의 단계를 넘어 실천의 마당으로 들어섰다. 지난날의 무수한 단절과 깊은 좌절 그리고 참담한 실패의 경험을 더 이상 되풀이할 수는 없는 일이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추진은 노동운동의 발전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사회의 발전을 이끌 주체세력의 성장이라는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